

미얀마 쉼터공 파고다 공간의 전통적 재현*

김 지 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개방적이고 문화 혼종화된 양공에 위치한 쉼터공 파고다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른 전통적 재현에 대해 살펴본다. 미얀마가 겪은 근대적 경험들은 그들의 전통과의 대치와 통합을 이루면서 문화적 변화를 겪어왔고, 이러한 변화들은 쉼터공 파고다의 공간에 반영되었다. 쉼터공 파고다가 근대 역사를 기점으로 여러 문화적 변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은 다양한 이질적 요소를 정신적인 요소로 포용하는 미얀마적 상좌부불교의 혼합주의적 성향에 기인하여 쉼터공 파고다를 그들의 ‘전통’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인시키는 기제로서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인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쉼터공 파고다의 전통으로의 수렴과 재현에 주목하여 쉼터공 파고다의 맥락적인 역사문화적 표상과 재현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미얀마, 쉼터공 파고다, 상좌부불교, 전통, 근대, 재현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김지혜 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선임연구원. ghye3372@naver.com

I. 들어가는 말

미얀마 최대의 상업도시인 양공(Yangon)¹⁾에는 수많은 불교 사원이 있고, 시내의 곳곳에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 건축물과 교회, 무슬림 사원, 중국 사당 등의 종교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 문화혼종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혼종적 경관은 미얀마 역사에 있어 변화의 중심지였던 양공의 근대역사를 공간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양공은 개방적인 해안 지역이라는 지정학적인 요인과 영국식민통치 기간 동안 집중된 근대적 변화로 인해 전략적인 식민지 국제항구 및 상업도시로 변화해 왔다. 외세로부터의 독립 이후 양공은 미얀마의 행정중심 도시(이전 수도)이자 미얀마 최대의 국제 항구도시 및 상업도시로서 근대역사 속에서 빠르게 변모하였다. 양공이라는 개방된 도시공간은 약 100년간의 영국 식민지배의 흔적들이 미얀마의 역사문화적 유산 및 근대적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켜켜이 존재하고 있는 문화혼종적 공간인 것이다.

양공의 수많은 역사문화적 건축물 중에서도 쉐더공 파고다(Shwedagon Pagoda)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불교 건축물로 자리 잡아 국가적 문화 상징물로 표상되고 있으며, 거대한 황금불탑의 경관에 미얀마의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쉐더공 파고다는 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 Theravada Buddhism)를 기반으로 미얀마의 토속신앙 및 힌두적 요소 등이 중층적으로 혼합되어 형성된 미얀마 상좌부불교적인 상징성, 우주관 및 세계관 등을 공간적으로 투영하는 장으로 표상되어 왔다. 미얀마인들의 혼합주의적 일상적 ‘전통’ 및 문화 관행이 재현되는 일상의 문화 공간으로

1)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에 따라서는 양곤(Yangon)이나, 본고에서는 양공(Yangon), 쉐더공(Shwedagon) 등과 같이 비교적 현지의 발음과 가까운 외래어 표기를 하였다.

인식되어 왔고, 미얀마 역사 속에서 미얀마인들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쉐더공 파고다 역시 근대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사문화적 요소들의 문화적 혼종화, 재구성 및 변용을 경험하게 된다. 영국 식민지배 기간 동안 미얀마의 ‘전통적인’ 상좌부불교적 요소들이 외부적 영향과 조우하여 만들어진 혼종화된 건축문화와 요소들이 오늘날 쉐더공 파고다의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역사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과 그 공간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문화적 변용을 경험하며 그들의 ‘전통’으로 재현되고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은 관광 맥락에 따라 여러 주체에 의해 미얀마의 ‘신성한 불교 성지 순례지’ 또는 ‘스펙터클한 관광명소’로서 표상되고 그 공간은 다각적으로 경험되고 재현되고 있으나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를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전통’으로서 귀결시키며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공이라는 가장 근대적이라 할 수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가장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쉐더공 파고다는 그 역사문화적인 함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간적으로 개방적이며 문화혼종화된 양공에 위치한 쉐더공 파고다의 ‘전통적인’ 표상과 재현을 미얀마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재조명해본다. 미얀마 사람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쉐더공 파고다의 ‘전통’으로의 수렴과 ‘전통’의 재현에 주목하여 쉐더공 파고다의 맥락적인 역사문화적 표상과 재현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미얀마를 비롯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약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구의 식민통치를 경험했다. 오랜 기간의 식민통치 경험은 오늘날 동남아시아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잔재해 있으며, 식민통치가 남긴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흔적들은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닌 동남아시아 내부 문화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열강에 의한 동남아시아 식민통치 경험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문화적 혼종화의 주요한 한 역사문화적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지혜 2019: 9).

미얀마 근대 역사에서 영국 식민통치를 기점으로 진행된 서구문화명과 미얀마 토착문화의 조우에 대한 문화적 혼종화 관점은 웨더공파고다의 역사문화적 표상과 재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인식틀을 제공한다. ‘혼종성(hybridity)’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세기이며, 이 용어는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의 혼합’이란 점에서 비(非)순수한 것,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란 뉘앙스를 지니고서 등장했는데, 당시의 혼종성의 개념은 다분히 인종주의 색채를 지니며 노예나 식민지인들에 관한 서구인의 텍스트에서 흔히 발견되었다. 이후 이 용어는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인식론적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면서 20세기 말 문화연구에서 재조명 받으면서 오늘날 문화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인식틀로 인식된다. 1990년 이래로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적 동남아시아 문화연구에 있어서 혼종성 개념은 문화나 민족/국민(Nation) 및 종족집단(Ethnic Group)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 시각에 맞서는 대안적인 인식틀로 부상했다(Bhabha 2002; Said 2007; 박민수 2015: 24; 김지혜 2019: 10).

문화연구에 있어서 문화적 혼종성을 핵심개념으로 주목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Bhabha 2002; Sanjek 1991; 김예겸 2014; 아르준 아파두라이 1996). 호미 바바(Homi Bhabha)는 혼종성이란 내부(자아)와 외부(타자)의 구획 대신 양자의 겹침과 착종(錯綜)을 부각시키는

용어라고 말하며, 문화란 결코 동일성이나 총체성으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 간 서로 끊임없이 경합하고 차이를 만들며 교섭(negotiation)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말한다. 교섭은 서구 문명이 이질적인 장소에서 다시 쓰여지면서 상호텍스트적으로 혼성화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교섭과 혼성화의 과정이 피식민자의 문화의 위치인 것이다(Bhabha 2002).

호미 바바는 문화들 간, 특히 식민종주국의 문화와 식민지 문화 간의 번역과 혼종이 이루어지는 경계공간을 문화연구의 주된 관심사로 삼아 양 문화 간 혼종성의 문화적 전략을 추구한다. 바바는 식민주의자나 피식민지인의 개별주체적 문제나, 혹은 지배와 억압의 단순한 이분법을 뛰어넘어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지인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교섭하는 ‘식민 공간’의 문화적 번역과 혼종의 과정에 집중하였다. 사이드(Said 2007)의 인식론과는 구별되어, 식민 공간이 제국의 논리가 관철되는 일방적 지배의 권력 공간이 아니라 지배와 저항이 항상적이며 교섭과 타협 그리고 경합이 일상화된 혼종적 공간임을 드러내고자 했다(김예겸 2014: 164-5; 김용규 2013: 430-448; 김지혜 2019: 10). 호미 바바가 제시하는 혼종화의 관점은 동서양의 이원론적 구조를 넘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적 상호작용에 집중하였는데, 상호 협상하면서 문화적 혼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인식틀이다. 호미 바바 등의 학자들은 이원화 또는 이분법적인 인식틀을 이용한 접근법이 아닌, 서구 이원론적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주목하면서 문화의 정태적인 개별정보보다는 역동적인 혼종적 총체성에 방점을 둔다.

아파두라이(Appadurai) 또한 서구사회 문화와 비서구사회 문화의 조우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적 혼종화에 집중하였다. 아파두라이는 비서구사회의 문화변동에 있어서 ‘토착화(vernacularization)’, ‘내부화(domestication)’, 그리고 ‘혼종화(hybridization)’의 서구사회 문화

의 능동적 수용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하면서 쌍방향의 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한 비서구사회와 서구사회의 새로운 문화 생성에 주목한다(아파두라이 1996). 반면, 사넵(Sanjek 1991)과 김예겸(2014)은 서구 및 비서구의 구도보다는 문화내적 혼종화의 기제에 더 주안점을 둔다. 사회인류학자인 사넵에 의하면 문화는 지속적으로 재구성과 창조의 과정에 있음을 강조하며 문화구성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특히 상호 유동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갈등하고 뒤섞이고 재편성된다고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예겸(2014)은 인도네시아 발리(Bali) 께짜(Kecak) 공연의 혼종화를 고찰하고, 께짜 공연을 구성하는 외부문명적 요소(Ramayana)와 기저토착문화적 요소(토착강신의례)들이 1920년대 이후부터 관광이라는 맥락 하에서 혼종화 과정을 겪어왔고, 외부문명적 요소인 라마야나(Ramayana)의 서사적 내용은 관광을 위한 ‘볼거리(spectacle)’ 요소 및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들과 혼종화하였다고 피력한다. 께짜 공연이 오늘날 ‘관광문화’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발리 토착강신의례의 상징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라마야나의 서사적 내용과 구성요소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는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적인 글로벌화’나 ‘관광문화’의 관점이 아니라 혼합주의적 발리문화의 내부적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께짜 공연의 혼종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류학자 로우(Low 2000)는 사회관계와 사회적 실천을 공간에 위치 짓는 ‘문화의 공간화(spatializing culture)’에 주목하면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로우(Low 2000: 127-128)에 의하면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특정한 공간이 역사적 및 정치·경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이념적 및 기술적 요소들 간의 경합에 대한 분석을 위한

개념이며, ‘공간의 사회적 구성’은 형성된 공간을 두고 그 이용자들이 행하는 의미 전유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김지혜 2019: 6). 르페브르(Lefebvre)는 공간이 사회적 산물로 생산됨에 있어,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바라보고 있다. 드 세르토(de Certeau) 또한 공간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르페브르가 강조한 ‘실천’ 및 ‘재현’에 주목한다. 장소라는 물리적 지점에 사람들의 ‘실천(practice)’이 더해지며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 경합되는 존재가 바로 공간이라는 것, 다시 말해 공간을 ‘실천된 장소(practiced place)’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e Certeau 1984: 117; 정현목 2013: 114; 김지혜 2020: 282).

미얀마의 근대적 경험은 영국의 식민지화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특히 양공 지역을 비롯하여 미얀마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다. 근대 역사에서 영국식민통치를 기점으로 진행된 외래적인 서구문명과 미얀마 토착문화의 조우에 대한 문화적 혼종화와 오늘날 미얀마의 대표적인 볼거리와 관광문화로 인식되는 웨더공 파고다에서 외부문명의 물질적 요소들을 미얀마적인 정신적 요소로 포용하는 미얀마인들의 실천은 웨더공 파고다 공간의 문화적 표상과 재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인식틀을 제공한다. 또한 웨더공 파고다라는 사회적 공간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실천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고다가 생산해내는 공간의 의미와 실천 및 재현, 그리고 혼종화의 맹점과도 연관지어 미얀마의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웨더공 파고다는 미얀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종교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곳으로, 버강왕조 시기부터 영국식민통치를 거쳐 오늘날까지 양공 지역과 역사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근대

역사 속에서는 급속한 근대화의 경험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쉐더공 파고다가 지속적인 내적 및 외적인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을 변함없이 그들의 ‘전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얀마인들은 근대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쉐더공 파고다를 ‘전통’으로 수렴시켜 인식하고, 쉐더공 파고다를 ‘전통적’으로 재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미얀마인들의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고, ‘전통적인’ 상좌 부불교적 성지인 쉐더공 파고다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전통 공간’으로서의 쉐더공 파고다

1. 술레 파고다를 통해 본 인식론적 차이

미얀마 최대의 상업도시 및 국제도시인 양공에는 미얀마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전통의 성지인 쉐더공 파고다(Shwedagon Pagoda)가 자리하고 있다. 미얀마 역사서나 건립신화²⁾에 따르면 쉐더공 파

2) 쉐더공의 유명한 건립 설화는 두 명의 몽족 형제가 부처의 여덟 가닥의 불발(佛髮)을 쉐더공 파고다에 안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쉐더공 파고다에 실재하는 15세기 담마제디 비문에는 두 몽족 형제가 부처의 여덟 가닥의 불발을 어떻게 가져오게 됐는지에 대한 전설이 기재되어 있다. 두 형제가 오프라파 왕국 근처를 통치했던 왕에게 불발을 선물했고, 그 왕은 떼인콕따라(Theinkottara) 언덕 위에 있는 60 피트의 작은 스투파에 사리를 안치했다는 내용이다. 쉐더공 파고다가 불교 신도들의 주요 성지인 만큼 이에 관한 신화 이야기와 판본도 다양하게 전래되고 있다. 두 형제 이야기는 실제로 15세기 훨씬 이전 상좌부불교 세계에 팔리어(Pali) 원고 비문이 상부버마에 알려졌으며 14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Moore, Mayer and U-Win Pe 1999: 74). 정기선(2015)은 쉐더공 파고다의 건립 설화와 관련하여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상인을 등장시켜 버마식으로 각색했다는 견해를 내거나 오프라파 인도의 오릿싸(Orissa)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삼보(三寶; 부처, 다르마(Dhamma), 상가(Sangha))가 갖추어지기 전인 이보(二寶)에 귀의한 최초의 재가신자

고다의 건립 기원은 약 2,500년 전 부처 생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대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양공이 근대 최고의 상업 도시로 부상하였고, 이전엔 몽족 마을의 작은 파고다에 불과했던 양공의 쉐더공 파고다는 자연스레 국가의 상징물로 자리를 잡았지만 오래 전부터 미얀마의 전통적인 문화정체성을 지켜 온 성지로 대표되고 있으며, 미얀마인들에게 상좌부불교적 신성성을 지니며 중요한 전통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다.

쉐더공 파고다는 쁘바웅 왕조가 양공 지역을 정복하기 이전 몽족(Mon)이 건립한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남인도에서 성행했던 상좌부불교는 해로를 통해 미얀마 하부 지역으로 유입했고 그 당시 몽의 수도였던 떠통(Thaton) 지역이 상좌부불교를 전래한 주요 거점이 되면서 상좌부불교가 융성했다. 11세기 버강왕조(1044-1287) 시기 버마족은 미얀마 하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몽족의 상좌부불교를 받아들였고, 몽족의 불교문화를 흡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미얀마 사회에 전반적으로 불교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몽족의 쉐더공 파고다 역시 미얀마를 대표하는 중요한 불교 성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쉐더공 파고다는 이전에도 종교적 순례지로 알려졌지만 쁘바웅 왕조가 양공 지역을 정복한 이후 쁘바웅 왕조의 왕들에 의해 종교적 중심지로 강조되어 숭배되었다. 본래 몽족의 작은 마을의 신성한 성지였던 쉐더공 파고다는 지배 종족인 버마족에 의해 파고다가 보수되고 도금되면서 왕국의 수호로 표상되었고 파고다에 쉐더공이 ‘버마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사회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구조물³⁾이 되었다. 미얀마 하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양공

가 미얀마인이라는 자부심은 이 설화와 맞물려 미얀마 불교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 설화가 미얀마 사람들이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는 중요한 설화이며 그들의 자부심을 나타낸다고 피력했다(김지혜 2020: 286-287).

3) 미얀마 역대 왕들은 국가에 대한 통치나 정복의 정치적 성격을 쉐더공 파고다에 지속적인 보수를 하면서 나타냈다. 가령 쁘바웅 왕조의 신뵘신 왕은 몽족 스타일의 첨탑을 버마 스타일로 교체하고 파고다에 대한 도금 및 장식을 하였고 이는 완성된

지역이 쉐더웅 왕조와 식민지배 시기의 근대적 변화의 과도기를 거치며 활발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식민지 국제항구 및 최대의 상업도시로 변모한 모습과 같이, 작은 스투파에 불과했던 쉐더공 파고다는 지배 종족인 버마족의 대표적인 최고의 불교 성지로 변모하면서 종교뿐 아니라 미얀마의 주요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공간이 되었다. 가장 근대적인 도시에서의 가장 전통적이며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대두되고 있다.

쉐더공 파고다는 미얀마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며,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영국식민통치 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미얀마 최고의 불교성지이고 미얀마의 혼합주의적인 상좌부불교 전통이 가장 잘 상징적으로 표상되고 재현되는 공간이다. 단순히 고대 인도의 정경적인 상좌부불교만이 표상되고 재현되는 공간이 아니라 버강 왕조 시기부터 아예지 불교(Ari Buddhism), 대승불교, 힌두교 및 토착신앙 등이 혼합된 미얀마적 상좌부불교가 표상되고 재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Krishna Murari 1985: 236-237; 천득염·염승훈 2018: 64-66). 쉐더공 파고다는 문화적 관념체계를 재현해내는 혼합주의적인 종교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은 영국식민통치 기간을 기점으로 근대성과 종교문화의 근대적 맥락을 수용하면서도 미얀마 상좌부불교적 전통과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상기된 바와 같이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은 미얀마의 혼합주의적인 상좌부불교 전통이 가장 잘 상징적으로 표상되고 재현되는 공간이 되며, 미얀마인들에게 있어서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이 지니는 역사문화적 함의가 크다.

쉐더공 파고다 외에도 양공에는 미얀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또 다른 파고다가 존재한다. 양공 시내에 위치하며 ‘양공의 심장’이라 불리는 술레 파고다(Sule Pagoda)⁴⁾이다.

버마화를 상징하는 의도이다(Edwards 2006: 200).

술레 파고다는 양공 시내의 기준점이자 상징이며 근대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파고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술레 파고다 보다는 웨더공 파고다를 더 많은 미얀마인들이 방문하고 순례하며, 미얀마인들은 ‘가장 효험 있는 파고다’, ‘가장 가치 있는 파고다’라는 의미인 ‘더고 짜 퍼야’, ‘땅보 어찌중 퍼야’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웨더공 파고다를 찬미한다. 이렇듯 양공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 웨더공 파고다와 술레 파고다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서 미얀마인들의 웨더공 파고다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기 위해 웨더공 파고다가 술레 파고다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차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1916년과 1920년 미얀마의 저명한 작가인 써야지 제야(sayagyi Zeya)가 양공에 방문한 후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남겼는데, 당시 양공지역은 개방적인 지리적 요인과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로 근대 도시의 모습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그 근대화의 공간적 중심에는 술레 파고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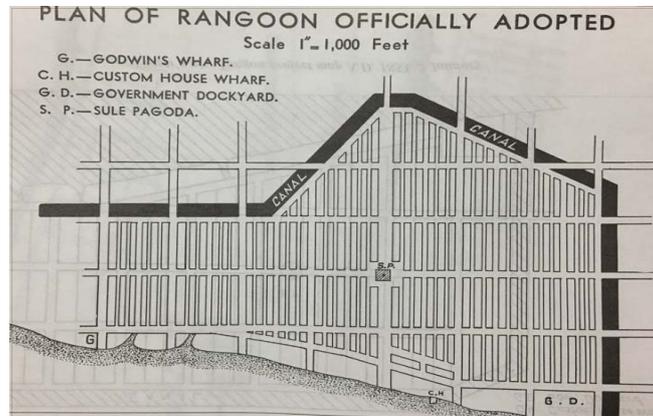
나는 1916년 처음 양공에 방문했다. 이 당시 내가 시내에서 방문했던 곳은 술레 파고다였다. 공공 도로와 셋길 등으로 걸어 다니면서 인도인, 중국인, 영국인들을 만났다. 오직 인도어가 의사소통의 매체였다. 그러나 1920년의 양공은 이전과는 달랐다. 중앙 기차역의 다리 위로부터 내려와 시계탑 근처에 도착해서 “The New Light of Burma Daily”의 신문을 파는 행상인이 소리치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Khin Maung Nyunt 2000: 19-22).

근대적 도시로 변모하기 이전의 양공 시내의 모습과 같

4) 술레(Sule) 파고다는 미얀마어 Su Wei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모이다, 모오다, 집합 시키다’를 의미

았으나 영국식민통치 기간에 양공은 근대적 공간으로 변모해 나가면서 콘크리트 도로와 전차선로가 설치되고, 근대식 사무소와 레지던스 건물들이 들어섰다. 술레 파고다는 양공 시내의 근대적 공간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도시경관의 주된 랜드마크가 되었다(Khin Maung Nyunt 2000: 19-22). 영국이 제2차 영국-버마 전쟁 이후 양공지역에 대한 근대도시 구축 계획을 수립할 때 벵갈 엔지니어스(Bengal Engineers)의 대령 프레이저(Fraser)의 1853년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술레 파고다가 근대화된 양공 시내의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었고, 영국합병 이후 양공의 근대도시가 건립되면서 술레 파고다는 양공의 중심지가 되었다(Khin Maung Nyunt 2000: 42-48, 50).

<그림 1> 술레 파고다를 중심으로 구획된 새 양공 프로젝트 지도



출처: Khin Maung Nyunt 2000: 46

양공시내 공간의 중심에 위치한 술레 파고다는 영국식민통치 기간에는 미얀마 민족주의 운동 시위집회가 그 주변에서 활발히 전개될 정도로 미얀마인들의 정치사회적 구심점 역할도 했었다. 1947년

에는 영국식민통치에 반대하며 미얀마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발생했고 이때 술레 파고다에 1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공무원들이 시위집회 본부를 두며 술레 파고다 인근의 마하반들라 공원에 모여 시위집회를 열기도 했다(Khin Maung Nyunt 2000: 63).

그러나 오늘날 미얀마인들의 술레 파고다에 대한 인식은 지난 근대역사 속에서 미얀마인들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술레 파고다는 오늘날 미얀마인들에 의해 새로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그저 가까이 붙어 지나쳐가는 파고다’의 의미인 ‘깃쫂 퍼야⁵⁾라 불리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술레 파고다가 갖는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지혜 2020: 287). 이와 관련하여 양공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양공에 거주하는 A氏(여, 29)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술레 파고다가 ‘깃쫂 퍼야’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를 우선 어려운 접근성이라 언급했다. 파고다 공간이 예불 드리기에도 협소하고 시내 주변이 너무 복잡하고 차도 많아서 접근하기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다.

술레 파고다는 요즘 ‘깃쫂 퍼야’로 불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파고다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곳을 많이 지나쳐가고 그 곳이 그저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이죠. 술레 파고다는 그 주변이 너무 복잡하고 차도 너무 많이 다니고, 접근성이 매우 불편해요. 그리고 파고다 내부 공간도 비좁아서 가족들이랑 나들이가기 불편하기 때문에 잘 가지 않아요. 반면, 술레 파고다보다는 웨더공 파고다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웨더공 파고다는 내부가 넓고 웨더공으로 가는 차편도 많고 교통이 편리해요. 또 사원 주변에는 놀이공원인 해피월드(Happy World)와 동물원 등이 있어서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에 좋은 곳이에요.⁶⁾

5) ‘깃’은 붙다 또는 붙이다, ‘쫂(쫂)’는 지나가다 또는 넘다 등을 의미

6) 2018년 6월 25일 인터뷰

또한 술레 파고다는 복잡한 주변과 불편한 교통을 지적하며 공간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공에 거주하는 여학생 B氏(여, 18)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사원도 쉐더공 파고다이고, 가장 많이 가는 곳도 쉐더공 파고다예요. 저는 학교 다니기 바빠서 쉐더공 파고다에 한 달에 2-3번 정도 가요. 학교 수업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한 축제날이거나 생일날에는 쉐더공 파고다에 꼭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생일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해요. 술레 파고다에는 잘 가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적 한번 가본 거 같아요(웃음). 제 친구들 중에는 술레 파고다에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술레 파고다 주변은 너무 복잡해서 잘 안가고, 가기가 불편해요. 차를 타고는 그 주변을 많이 지나가지만 파고다 내부까지는 잘 안 들어가고 기도하러도 잘 가지 않아요. 거의 시내 주변에 지나다닐 때 보면서 지나치는 일이 많아요.7)

상기된 현지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오늘날 쉐더공 파고다가 술레 파고다보다 더 미얀마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접근 용이한 공간적인 접근성과 상좌부불교문화 친화적인 종교문화적 공간성에 대해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벵갈 엔지니어스(Bengal Engineers)의 대령 프레이저(Fraser)가 1853년 작성한 양공 근대도시 구축계획 및 영국 합병이후 실제로 진행된 양공 근대도시화가 자리잡고 있다. 일련의 양공 근대도시화의 중심에는 술레 파고다가 공간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술레 파고다가 근대 도시 양공 시내의 공간적 중심의 이미지는 강화되었으나 상좌부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종교순례의 이미지가 퇴색이 되어버린

7) 2018년 6월 27일 인터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내 주변 공간의 복잡성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미얀마인들이 술레 파고다에서 집회를 갖기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한편 양공에 거주하는 G氏(여, 40세)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술레 파고다에는 하나의 부처 유물이 있으나, 쉐더공 파고다에는 불발과 부처의 힘을 상징하는 4개의 신성한 유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레 파고다보다는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믿음이 더 크죠. 그래서 사람들은 쉐더공 파고다를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중심에 두고 종교생활을 해나가요.⁸⁾

상기된 인터뷰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은 쉐더공 파고다가 술레 파고다보다 더 대중적인 이유로 상좌부불교적 신성성을 지목하고 있다. 쉐더공 파고다의 경우, 중앙의 파고다를 중심으로 예불 공간인 아용간 더자웅(부속건물)이 사방(四方)에 둘러싸고 있다. 이곳에는 싱구왕이 기부한 네 개의 부처상이 있으며 부처상은 좁은 동굴 내부의 공간에 안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까꾸만(Kakusandha, 구류손불)의 법장(法杖), 고나공(Konagamana, 구나함모니불)의 물바가지(water-dipper), 까따빠(Kassapa, 가섭불)의 가사(袈裟), 고타마(Gautama)의 여덟 가닥 불발이라는 4개의 주요 부처 유물 등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신성물들의 존재들로 인해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가 여타의 다른 파고다에 비해 그 상좌부불교적 가치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지혜 2020: 285). 다시 말해서 미얀마 근대역사에서 쉐더공 파고다는 술레 파고다와 비교했을 때 미얀마의 ‘전통적인’ 상좌부불교적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좀 더 잘 유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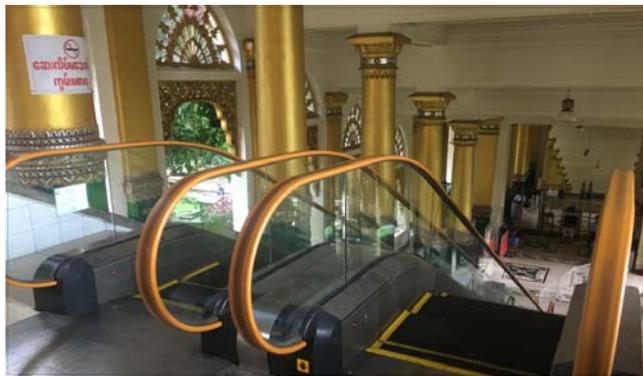
8) 2018년 7월 9일 인터뷰

2. '전통의 쉐더공'에 대한 인식

앞 장에서는 미얀마인들의 쉐더공 파고다와 술레 파고다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미얀마인들의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인식에 대해 비교론적 이해를 시도해 보았고, 이어서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쉐더공 파고다를 미얀마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쉐더공 파고다에 대해 살펴보면 '전통적' 이미지와 '근대적' 이미지가 공존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쉐더공 파고다 입구에는 현대식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종교 사원에서의 에스컬레이터의 모습은 어느 종교 성지에서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그림 2> 쉐더공 파고다의 에스컬레이터



출처: 저자촬영 사진

또한 <그림 3>에서처럼 쉐더공 파고다 경내에는 신성한 장소와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현대식 네온사인 효과나 네온사인 간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쉐더공 파고다의 부처상마다 네온사인으로 영채

를 상징하는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쉐더공 파고다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따금 신기한 광경이라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또한 일반 상점의 네온 간판처럼 파고다 경내의 일부 부처상이나 유물 앞에 ‘수 따엥 빼 피야(기도를 잘 들어주는 부처상)’라는 간판을 달아 표시해 놓기도 한다.

<그림 3> 네온 불빛으로 장식된 부처상



출처: 저자촬영 사진

한편 쉐더공 파고다 입구에서 메인 플랫폼까지 오르는 길에는 불교 용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업적인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상점들은 승려들의 일상적인 필수품에서부터 책, 부처상, 기념품,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며, 경내에 봉헌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신성한 공간의 세속적인 풍경은 오늘날 쉐더공 파고다 공간에서 이미 일상적인 문화경관이 되었다. 쉐더공 파고다의 상점 공간에는 플라스틱 장난감, 엽서, 티셔츠 등 ‘전통적이지 않

은' 웨더공 기념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웨더공 파고다의 동쪽 계단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 H氏(남, 60대 추정)는 웨더공 파고다 공간의 이러한 변화된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래전 왕조시대 때부터 꾸준히 판매되어온 물품은 꿩(쌈는 담배)을 씹을 때 자르는 가위인 ‘꿩 흐냇(가위)’이 있어요 꿩이 딱 딱하니까 이를 자르기 위한 예전 왕이 썼던 물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장난감과 악기입니다. 악기는 하프, 산 오지, 봉, 피리 등 선물 용도로 작게 만든 것이 있어요 또한 염주와 종을 치는 용품(예불 시 귀신이 이 소리를 듣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공덕을 쌓음) 등의 ‘니르반꿩’⁹⁾이 있어요 장난감 중에는 빠다잉타 영(얼굴이 있는 둥근 인형), 지꿩(부엉이 인형), 포와웃(남자 인형), 각종 재료(돌, 목재, 쇠 등)로 만든 부처상, 부처 사진이 박혀 있는 물품들을 판매하지요 장난감은 미얀마 전통 인형모양의 장난감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 장난감 등이 나왔어요 이전에 비해 현재 판매하지 않는 물건은 딱히 없고 이전 것들을 지금도 계속 판매중이에요 새로 들어온 것들은 포크레인, 자동차, 장난감 칼, 인형 등의 최신 장난감이에요.”¹⁰⁾

상기된 현대식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네온사인의 장식, 세속적인 상인 공간 등은 오늘날 웨더공 파고다에서 일상적인 경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웨더공 파고다 공간의 이질적 변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해왔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미얀마 근대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이미 지속되어 왔다. 웨더공 파고다 공간의 보전 및 이질적 변형 이슈에 대한 논의는 영국식민통치 기간부터 복잡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는데, 초기의 논의는 주로 웨더공 파고다의 관념문화 실천, 즉 ‘꿩쌈기’와 관련이 깊었다(Edwards

9) 니르반꿩은 보통 열반에 이르기 위해 쓰이는 물건을 뜻하며, 염주, 종을 치는 용품, 피야 용투(돌, 쇠 등으로 만든 부처상) 등의 물건들이 포함된다.

10) 2018년 6월 23일 인터뷰

2006). 영국식민정부는 ‘공덕 쌓기’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쉐더공 파고다 보수 및 장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당시 미얀마인들은 ‘공덕 쌓기’로서의 기부를 통해 쉐더공 파고다를 증축하거나 새로운 부속건물을 신축하기도 했는데, 이때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아닌 ‘근대화된 건축양식’을 수용하기도 했다. 영국식민정부는 미얀마인들의 ‘근대화된 건축양식’ 수용을 ‘전통적인’ 공공재의 파손행위로 인식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김지혜 2019: 112).

또한 미얀마인들은 ‘공덕 쌓기’ 실천으로 쉐더공 파고다 첩탐 등에 대량의 금박을 입히기도 했는데, 이러한 금박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영국식민정부는 오히려 ‘소박함’과 ‘진귀한 위엄성’으로 상징되는 미얀마 예술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Edwards 2006: 204). 윈 빼(Win Pe 1972: 13)¹¹⁾의 쉐더공 파고다 건축 및 장식 재료에 대한 설명을 고려한다면 영국식민정부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고대인도에서 쉐더공 파고다가 위치해 있는 현재 미얀마 남부지역을 ‘황금의 땅’을 의미하는 수완나부미(Suvannabhumi)라고 부를 정도로, 황금은 미얀마 남부지역에서도 특별한 문화적 상징성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쉐더공’ 파고다의 이름에서 ‘황금(쉐)’의 언덕(더공) 또는 ‘황금’으로 된 더공(양공의 옛 이름)의 불탑이라는 의미를 통해서도 미얀마인들에게 황금이 갖는 문화적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미얀마 고대 군주들에 의해 황금의 쉐더공 파고다가 만들어진 이후 쉐더공 파고다 첩탐에 대한 ‘금박 입히기’는 이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미얀마

11) 윈 빼는 쉐더공 파고다가 본래 은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시대에 따라서 주석, 구리, 납, 대리석, 철-벽돌(iron-brick) 등으로 덧입혀지고, 이 후에 다시 황금, 은, 동, 합금, 주석, 납, 석조, 철, 대리석, 점토 벽돌들이 더해졌고, 여기에 석회, 접착제, 회반죽, 석고 등을 사용하여 더욱 견고한 외형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지적한다(Win Pe 1972: 13).

인들에게도 체화된 문화적 관행으로 존재해왔다. 따라서 영국식민정부가 취한 쉐더공 파고다 침탑 ‘금박 입히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다분히 미얀마 ‘전통’에 대한 작위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덕 쌓기’와 관련된 쉐더공 파고다 공간의 보전 및 이질적 변형 이슈는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미얀마 ‘전통’ 문화를 박물관화하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토대로 하는 영국식민정부가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경쟁적인 ‘공덕 쌓기’ 문화관행 실천을 이교도적인 (pagan) 낭비와 소비로 규정하고 종교문화적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Edwards 2006: 199). 그러나 영국식민정부가 취했던 오리엔탈리즘적이고 기독교적 태도와 함께 주목해야 할 맥락은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영국식민정부의 정치적 태도이다. 쉐더공 파고다는 영국식민통치 기간에 미얀마인들의 ‘정신적 저항의 공간’으로서, 각종 집회와 저항을 파고다의 공간을 통해 나타냈기 때문에 영국식민정부는 ‘전통문화 보전’이라는 파라독스한 명분을 통해서라도 쉐더공 파고다 공간을 통제하려했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미얀마 독립 이후, 미얀마 군부독재정부는 쉐더공 파고다에 대해서 과하다 싶은 정도의 보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독립이후 미얀마를 새로운 국민국가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군부 중심의 미얀마 토착 엘리트들에 의해 도구주의적으로 진행된 상좌부불교의 국가이데올로기화가 있었다. 독립 이후 우누(U Nu) 정권은 불교사회주의(Buddhist Socialism) 이데올로기 하에 쉐더공 파고다를 국가적 기념물로서 그 지위를 격상시켰고, 1974년 이후 미얀마 군부독재정부는 본격적으로 상좌부불교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군부정권은 미얀마의 불교와 정치를 결합하여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힘썼다. 이 과정에서 군부독재정

권은 쉐더공 파고다 공간에 대한 공간적 ‘공덕 쌓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오래된 건축구조물의 보수나 건축물 주변 새단장 등의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근대화된 건축재료 및 치장재료를 사용했다(Edwards 2006: 207). 이는 국가적 통합을 위해서 쉐더공 파고다를 불교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동학적 상징물로 삼으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고, 또한 영국식민정부의 의도와 같이 민중들의 저항 정신이 깃든 공간이었던 쉐더공 파고다 공간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미얀마인들 정신을 통제하려는 의도와도 관련성이 있다(김지혜 2019: 113-114).

오늘날 쉐더공 파고다 공간의 보전 및 변형 방식은 물질적 공간 구성방식보다는 정신적 공간 구성방식과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식민통치 기간 동안에 영국식민정부는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을 ‘상상의 전통적인’ 물질적 공간으로 보전하려고 시도했고, 독립이후 군부독재정권은 쉐더공 파고다를 도구주의적으로 상좌부불교적인 물질적 공간으로 보전하려고 시도했다. 오늘날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 공간을 ‘미얀마식’ 정신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쉐더공 파고다 위원회의 한 관리자 I氏(남, 60대 추정)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옛날에는 미얀마식으로만 만든 흐느빠 더자웅(hni Pyar Tazaung)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부한 사람들은 보족시장 앞에 거주지를 형성한 중국인들이었고요 [...] 영국의 식민 통치 시대에는 영국의 솜씨와 문화가 쉐더공에도 녹아있었는데, 이 때는 영국의 디자인(모양) 또는 식민지 시대의 디자인(모양)으로 세워졌었어요. 그러나 독립 이후 그리고 현재, 쉐더공의 일부 건축 공간의 요소들은 식민지 시대의 디자인(모양)을 미얀마식으로 대신한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형식의 하나인 ‘싱(Sin, 도자기 등을 광 칠하는 것)’을 이용해 다시 디자인하거나

모양을 만들어내는 등이 있지요. 하나의 예로, 20년이 지난 쉼터를 ‘싱(Sin)’으로 만들어서 쉼터공에 봉헌한 일도 있어요.”¹²⁾

위의 인터뷰에서 I氏가 설명한 것처럼 미얀마인들은 쉼터공 파고다를 보수할 때 화려한 페인트칠과 반짝이는 장식을 선호하여 치장하기도 하고 쉼터공 파고다의 일부를 미얀마의 재료나 디자인으로 대체하면서 여러 물리적 공간요소들을 포용하는 ‘미얀마식’ 정신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인들의 쉼터공 파고다 재구성 방식은 양공대학교 L 교수(남, 47세)와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쉼터공에서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쉼터공에는 식민정부와 외부로부터의 문화와 미얀마 고유의 문화 등이 혼종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식민지배기 때 문화나 형태 등 그대로를 두지 않는 편이에요. 식민지배 시기의 문화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부처나 불교와 관련해서는 식민지배 형태나 형식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미얀마 형식(스타일)으로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식민지배 시기의 형태가 미얀마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요.”¹³⁾

쉼터공 파고다 위원회의 I氏와 양공대학교 L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미얀마인들은 쉼터공 파고다 공간에 ‘미얀마식’ 정신적 공간 구성방식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얀마의 상좌부불교가 다양한 토착신앙체계와 다른 불교 계파들을 흡수하면서 혼합주의적으로 진보해왔던 것처럼, 오늘날 미

12) 2017년 7월 28일 인터뷰

13) 2018년 7월 3일 인터뷰

얀마인들이 시도하는 ‘미얀마식’ 정신적 공간 구성방식에는 다양한 이질적인 물리적 공간구성 요소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쉐더공 파고다 공간에는 ‘현대적인’ 이질적인 건축 및 장식 요소들, 즉 현대식 에스컬레이터, 네온사인의 장식, 파고다 주변의 세속적인 상업 공간 등이 ‘전통적인’ 상좌 부불교적 문화관행들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쉐더공 파고다의 물질적 공간구성 요소와 정신적 공간구성 요소의 혼종화는 양공에서 진행된 G氏(여, 40세)와의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다.

“쉐더공 파고다엔 현대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도 하고, 네온사인으로 꾸며진 곳이 많아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보셨죠? 이건 다 현대적인 요소들이에요. 미얀마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쉐더공 파고다는 전통이나 현대적이나 말하기 보단 단지 예전부터 쪽 있어온 ‘쉐더공 파고다’인거예요. 우리는 부처를 믿고 부처의 유물이 안치 되어 있다고 믿고 있죠. 쉐더공 파고다는 그저 이전부터 이곳에 존재해온 미얀마의 쉐더공 파고다라 생각하고 있어요.”¹⁴⁾

IV. ‘전통적’ 쉐더공 이미지의 현대적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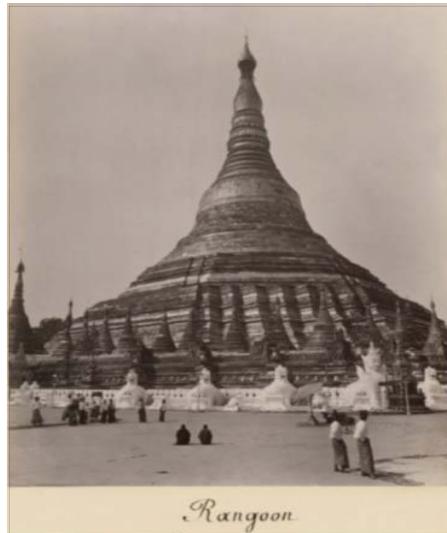
이탈리아 상인 가스파로 발비(Gasparo Balbi, 1550-1623)는 쉐더공 파고다를 기록의 형태로 서구사회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는 1583년 쉐더공 파고다에 방문했고 동쪽 계단 근처의 담마제디종¹⁵⁾에 대한 기록만을 남겼다. 또한 잔존하는 최고의 쉐더공 파고다 그림은 1744년에 영국해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해

14) 2018년 7월 9일 인터뷰

15) 17세기 초 포르투갈 모험가이자 상인인 브리토(Filipe de Brito)가 쉐더공 파고다 경내에 있던 담 마제디종을 강탈해 가던 중에 양공강에 빠뜨려 사라져버렸다.

밀턴(Alexander Hamilton, 1688-1733)이 그린 스케치 그림으로 전해지며, 그는 종 모양의 쉐더공 파고다 스투파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르게 오목한 고깔 모양의 구조를 묘사했다(Abbott 1997: 132).

<그림 4> 영국인 사진작가가 찍은 쉐더공 파고다 사진엽서(c. 1860)



출처: https://www.zazzle.com/the_shwedagon_pagoda_at_rangoon_burma_c_1860_postcard-239100333686404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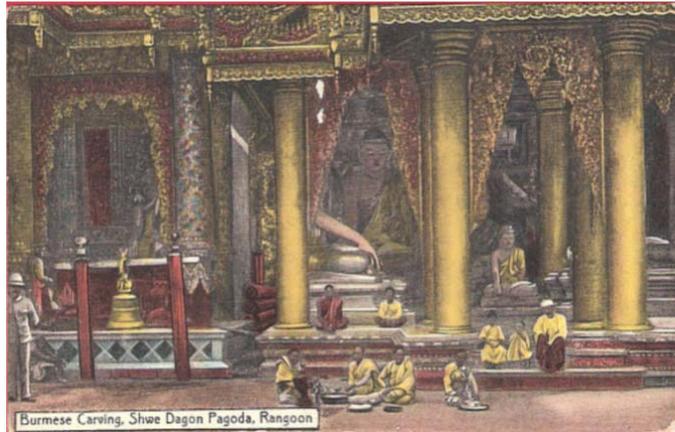
쉐더공 파고다가 서양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영국-버마 전쟁(1824-1826) 이후부터로 볼 수 있고, 그 주된 주체는 서양예술인들이었다. 영국식민통치 기간 동안에 쉐더공 파고다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이국적 피사체로 서양예술인들의 ‘심미주의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위의 <그림 4>와 같이 쉐더공 파고다는 이국적인 피사체로서 서양 화가와 사진작가에게 인기가 좋았다. 당시 미얀마를 방문한 서양 화가 및 사진작가들은 주로 쉐더공 파고다의 스투파의 종 모양의 형상을 강조해서 심미주의적으로 이

미지화한다던지 또는 쉐더공 파고다의 스투파와 플랫폼을 서양의 원근법으로 묘사하곤 했다(Moore 2012: 192).

영국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드윈 아놀드(Edwin Arnold, 1832-1904) 경은 쉐더공 파고다를 ‘불의 피라미드(Pyramid of Fire)’라고 불렀고, 영국 극작가 서머셋 모옴(Somerset Maugham, 1874-1965)은 쉐더공 파고다를 ‘영혼의 암흑을 밝히는 소망(A Sudden Hope in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Abbott 1997). 영국 화가 로버트 텔벗 켈리(Robert Talbot Kelly, 1861-1934)는 1904년 7개월 간 미얀마 전국을 여행하면서 여러 경관의 수채화를 남겼는데, 특히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에드윈 아놀드의 심미주의적 극찬을 상기시키면서 형용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극찬을 더했다. 이렇듯 서양의 예술가들이 심취해 있었던 쉐더공 파고다의 심미주의적이고 이국적인 경관은 1840년대 이후 사진엽서에 서도 자주 등장하게 된다. 영국식민통치 기간 동안에 미얀마를 찾는 유럽 여행가들에게 쉐더공 파고다의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 기념품 중 하나였다(Moore 2012: 191-192).

1583년 쉐더공 파고다를 방문하고 기록을 남겼던 이탈리아 상인 가스파로 발비로부터 시작하여 영국식민통치 기간을 거쳐 서양여행자들에 의해서 쉐더공 파고다의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가 미얀마의 대표적 이미지로 표상되었고, 특히 서양예술가들에 의해서 쉐더공 파고다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피사체로 재현되었다. 이러한 쉐더공 파고다의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는 사진엽서라는 대중적인 인쇄매체를 통해서 서구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나갔다(<그림 5>참조).

<그림 5> 1910년대 쉐더공 파고다 사진엽서



출처: <http://hlmyaing-postcardandstamps.blogspot.com/>

그러나 대항해시대 및 영국 식민통치기간에 강화된 쉐더공 파고다의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는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미얀마인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는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는 일상의 ‘미얀마적이며 상좌부불교적인’ 이미지였다. <그림 6>과 같이, 오늘날 미얀마인들의 가정집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상점 한편에는 쉐더공 파고다의 사진들이 걸려있는데, 과거 대항해시대 또는 영국식민통치 기간에 강화된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리적 요소를 수용하여 정신적 요소를 완성해나가는 미얀마의 혼합주의적 상좌부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쉐더공 파고다 경내의 상점과 시장의 상업적 공간에서 소비되는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는 적어도 상좌부불교도 미얀마인들에게는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인’ 이미지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쉐더공 파고다는 전통의 상좌부불교와 낫 신앙을 포함한 다신앙의 ‘미얀마적인’ 혼합주의적 성격에 기인하여, 쉐더공 파고다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대치 및

통합의 여러 변화들을 물질적인 요소가 아닌 정신적인 요소로 포용하는 방식을 통해 결국에는 그들의 ‘전통’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웨더공 파고다의 이러한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 이미지는 미얀마인들의 일반가정집, 상가, 식당 등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미얀마인들은 웨더공 파고다 공간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세의 길흉화복과 내세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부처상과 함께 웨더공 파고다의 사진을 일상의 생활공간에 걸어놓곤 한다(김지혜 201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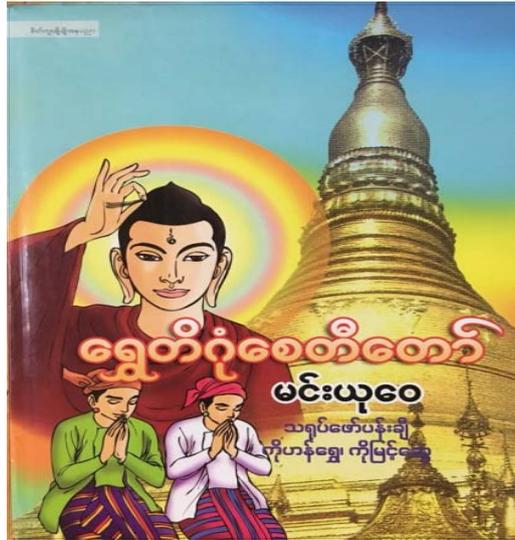
<그림 6> 상점 한편에 붙여진 웨더공 파고다 사진들



출처: 저자촬영 사진

또한 웨더공 파고다의 ‘미얀마적이고 심미적인’ 이미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출판물을 통해서도 불교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맥락 하에서 재현되고 확산되어 왔는데, <그림 7>의 상좌부 불교적 만화책과 같이, 웨더공 파고다는 미얀마인들에겐 스펙터클한 이국적인 이미지보다는 미얀마인의 종교적 가치를 지닌 전통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7> 쉐더공 파고다를 주제로 한 만화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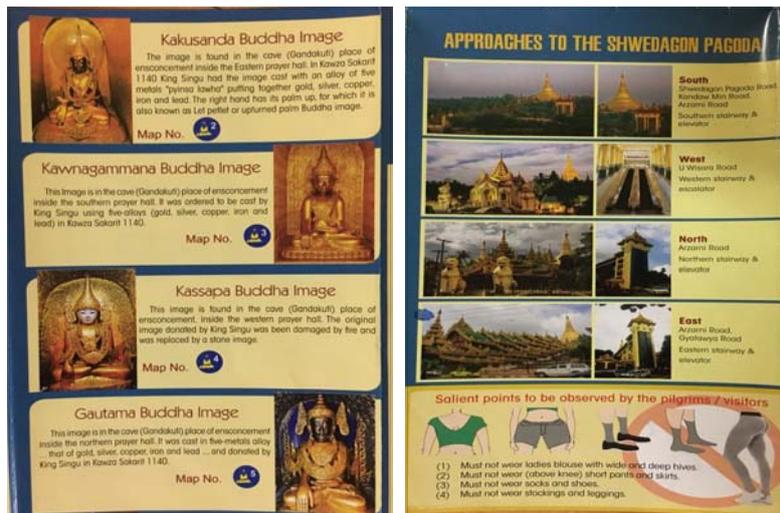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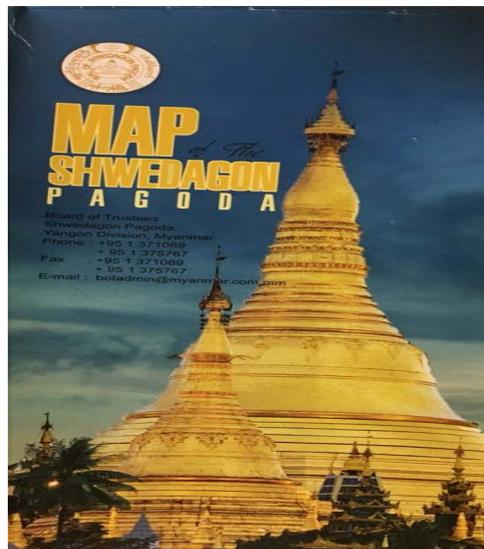
출처: 저자촬영 사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출판물 수단을 통해서 불교사회의 이데올로기 맥락 하에서 재생산되어온 쉐더공 파고다의 ‘미안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인’ 이미지는 오늘날 관광의 맥락에서 출판되는 관광 포스터, 브로슈어 및 팸플릿 등을 통해서도 재현되고 표상화되고 있다. 정정숙(2004)은 관광 포스터, 브로슈어, 팸플릿 등은 관광객에게 여행 동기를 자극하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피력한다. 또한 관광 팸플릿은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 관광지의 풍경을 보여준다거나 그곳의 주요 관광 요소들을 나타내면서 특정의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강조해 주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쉐더공 파고다를 홍보하는 관광 포스터, 브로슈어 및 팸플릿의 텍스트와 시각적 이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정숙(2004)이 지적한 것처럼, 쉐더공 파고다의 특정 이

미지가 부각되어 재생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김지혜 2019: 123).

<그림 8> 웨더공 파고다 팸플릿

(앞면)



다. 앞면에는 쉐더공 파고다의 동서남북 사방의 입구에 대한 설명이 있다. 쉐더공 파고다의 하단부부터 상단부까지의 높이, 면적, 구성 등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역사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 모셔진 여러 부처와 유물에 대해 설명해 놓았으며, 파고다 입장 시 방문객이 사원에서 주의해야 되는 행위와 복장 규제에 대해 표시되어 있다. 뒷면은 쉐더공 파고다 공간의 구조도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의 맥락 하에서 생산된 팸플릿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관광객의 이목을 끌만한 종교 축제나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보다 더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당 팸플릿은 쉐더공 파고다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관광소비적 이미지보다는 쉐더공 파고다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 및 설화, 각 부처상들에 대한 설명, 침탑의 상징적 구조 그리고 신성한 공간에서의 예절에 관한 설교적 텍스트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氏(여, 29세)와의 인터뷰에서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인’ 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쉐더공 파고다 팸플릿을 살펴봤을 때, 팸플릿 구성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쉐더공 관련한 역사에 대한 설명이 다소 짧은 것 같아요. 민돈 왕이 쉐더공 주변에 있던 우물을 메워 땅의 지반을 다졌던가 하는 세부적인 쉐더공 역사 또는 설화를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외부로의 홍보 활동보다는 쉐더공의 종교적 가치와 외부로부터의 전통 보호가 중요해요. 쉐더공은 상업적인 관광지라기보다는 경배와 예배의 장소예요.”¹⁶⁾

16) 2018년 6월 25일 인터뷰

양공의 F氏(남, 38세)과의 인터뷰 또한 쉐더공 파고다가 현대적 맥락에서 미얀마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으나 미얀마인들에게는 변함없는 ‘전통적인’ 불교성지이며 상좌부불교 정체성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미얀마의 대표적인 성지 쉐더공 파고다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파고다의 이미지 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정부가 관광산업을 위해 파고다로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 이미지로 홍보도 하고 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을 테지만, 우리는 쉐더공 파고다를 관광을 위해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쉐더공 파고다는 이전부터 부처유물이 안치된 국가의 대표 성지이며 국민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킨 곳이에요. 우리는 이 곳에서 부처에 대한 믿음과 공덕을 쌓는 것뿐이죠.”¹⁷⁾

비슷한 의견으로, 양공문화대 J교수(남, 40대)는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이 역사문화적 변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얀마의 전통으로 대표적인 성지임을 강조했다.

“영국의 식민지배 시기는 양공이 도시적으로 큰 변화를 맞는 계기가 되었고 발전하는 계기였죠. 그 당시 예술적인 부분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건축적 측면에서 혼종적인 부분도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쉐더공 파고다는 미얀마의 불교문화가 지배적인 곳이며 변함없는 미얀마 ‘전통의 성지’라고 생각해요. [...] 예를 들어 더자웅(부속건물)의 경우도 하나의 공덕으로서 불교도인의 마음이며 관념이라고 볼 수 있죠.”¹⁸⁾

이렇듯 쉐더공 파고다의 관광 포스터 및 팸플릿에 재현되어 있는

17) 2018년 7월 4일 인터뷰

18) 2017년 7월 26일 인터뷰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 이미지는 관광 맥락 하에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2011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얀마의 관광은 급속도로 활성화되어가고 있고, 미얀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랜드마크인 쉐더공 파고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급증하고 있다. 쉐더공 파고다 홈페이지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파고다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치는 성수기(약 11-2월)엔 매월 약 6-7만 명, 비수기(약 6-10월 우기)엔 약 3-4만 명에 이른다. 경제개방 이후 미얀마 관광은 활성화되고 있으며,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는 관광포스터, 브로슈어 및 팸플릿 생산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부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이미지로 소비가 되며 ‘스펙터클한 불거리’ 중심의 관광지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만났던 쉐더공 파고다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 포스터, 브로슈어 및 팸플릿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좌부불교적 가르침이나 상징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관광지의 하나로서 파고다를 마주하였다. 이는 2017년 7월 쉐더공 파고다에서 만난 두 명의 포르투갈인 및 미국인 관광객 O氏와 P氏(남여, 30대 추정)의 인터뷰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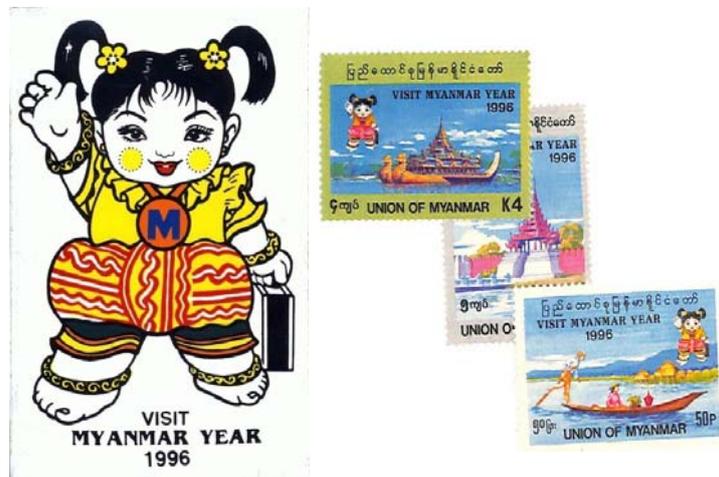
“사실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역사나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채 이곳에 방문했고, 지금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웃음). 관광 책에서 찾아보고 대표적인 관광지라 꼭 방문해야 할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됐어요. 둘러보니까 황금의 파고다가 굉장히 멋스럽고 멋진 장소인 것 같아요.”¹⁹⁾

2011년 출범한 미얀마 문민정부도 미얀마 국가 홍보수단으로서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있다. 1996년 군부정권은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얀마 방문의 해(Visit

19) 2017년 7월 26일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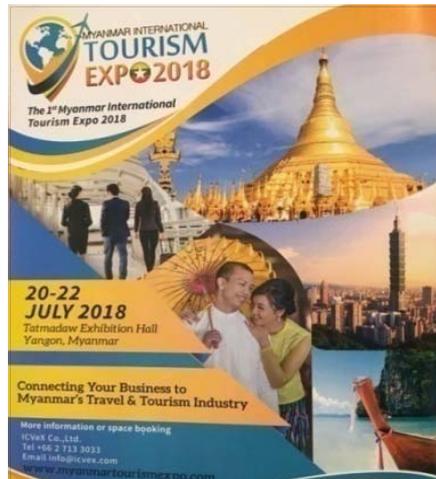
Myanmar Year)’를 지정하고 시행한 적이 있다. <그림 9>에서처럼 당시 미얀마 관광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공식 마스코트는 미얀마의 전통 인형 이미지였다. 해당 전통 인형 이미지는 관광홍보를 위한 공식적인 미얀마 마스코트로 쓰였고, 우표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8년 미얀마 관광 엑스포 표지에 실린 미얀마 국가의 상징적 이미지는 ‘쉐더공 파고다’의 모습이었다. 해당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는 미얀마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미얀마 국가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점은 관광 엑스포 표지에 재현된 쉐더공 파고다의 이미지는 상기된 쉐더공 파고다 관광안내 자료들에서 의도된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인 이미지보다는 ‘스펙터클한 이국적인’ 불거리 이미지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9> 1996년 ‘미얀마 방문의 해’ 마스코트 이미지



출처: 왼쪽은 <https://4travel.jp/travelogue/10249471>,
오른쪽은 <https://www.mysticstamp.com/Products/Worldwide/328-30/Burma/>

<그림 10> 미얀마 관광 엑스포 표지 및 웹페이지에 실린 웨더공 파고다 이미지



출처: 위쪽은 <https://allevents.in/yangon/myanmar-international-tourism-expo-2018/20001642807773>, 아래쪽은 저자촬영 사진

상기된 바와 같이 웨더공 파고다의 이미지는 1583년 이탈리아 상인 가스파로 발비(Gasparo Balbi)가 웨더공 파고다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래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표상되고, 재현되고, 소비되어 왔다. 대항해시대와 영국식민통치기간에는 ‘심미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확산되고, 독립 이후에는 불교사회주

의를 도구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는 군부독재정권에 의해서 쉐더공 파고다의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인’ 이미지가 재현되기도 했다. 2011년 이후 문민정부에서는 다시 국가홍보를 위해서 스펙터클한 ‘이국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쉐더공 파고다의 ‘이국적인’ 이미지가 상업자본주의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쉐더공 파고다 관련 관광안내 자료들과 이와 관련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미얀마인들에게 있어서 쉐더공 파고다는 변함없이 신성하며 전통적인 불교성지이며,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물질적인 요소를 정신적인 요소로 포용하려는 미얀마의 혼합주의적 상좌부불교의 성향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공간적으로 개방적이고 문화 혼종화된 양공(Yangon)에 위치한 쉐더공 파고다(Shwedagon)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른 전통적 재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얀마가 겪은 근대적 경험들은 그들의 전통과의 대치와 통합을 이루면서 문화적 변화를 겪어왔고, 이러한 변화들은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에 고스란히 남았다. 쉐더공 파고다가 근대 역사를 기점으로 여러 문화적 변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를 그들의 ‘전통’으로 수렴하고 인식하며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인시키는 기제로서 실천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미얀마인들이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에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를 수용해온 방식은 물질적인 요소를 정신적인 요소로 포용하려는 미얀마 상좌부불교의 혼합주의적 성향에서 기인한 것인

데, 본 논문은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에 나타난 이러한 ‘미얀마적이며 상좌부불교적인’ 실천과 인식들이 미얀마인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음을 규명해보고자 했다.

먼저 쉐더공 파고다가 위치한 양공 지역은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으나 지정학적인 요인 등으로 쁘바웅 왕조와 영국의 식민통치 시기 동안의 근대적 변화를 맞이하며 전략적인 국제도시 및 상업도시로 변화해갔다. 독립 이후 양공은 미얀마 최대의 국제 항구도시 및 상업 도시로 빠르게 변모해오며 영국 식민지배의 근대적 흔적들과 미얀마의 역사문화적 유산이 조화를 이룬 ‘전통’과 ‘근대성’의 문화혼종화가 가장 잘 투영되어 나타나있는 공간이 되었다. 양공의 근대도시로의 변화에 따라서, 쉐더공 파고다 역시 몽족 마을의 작은 파고다에서 미얀마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성지로 점차 변모하게 된다.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은 영국식민통치 기간을 기점으로 근대성과 종교문화의 근대적 맥락을 수용하면서도 미얀마 상좌부불교적 전통과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쉐더공 파고다는 토착신앙, 다른 불교 계파 및 다양한 토착신앙체계를 흡수한 혼합주의적 상좌부불교의 종교 공간으로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영국식민통치 기간을 거치며 상좌부불교 전통을 근대적으로 재현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오늘날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를 시공을 초월하여 물질적 구성방식 보다는 정신적 구성 방식을 통해 현대의 쉐더공 파고다를 미얀마의 ‘전통’으로 수렴하고 재현하고 있다.

첫 번째, 미얀마인들이 어떻게 쉐더공 파고다를 ‘전통’의 공간으로 수렴하고 재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술레 파고다와의 비교를 통해 인식론적 차이점을 살펴본다. 쉐더공은 근대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여러 문화적 변용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를 그들의 ‘전통’으로 수렴시켜 ‘전통적으로’ 재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쉐더공 파고다의 현대적인 ‘전통 공

간'에 대한 인식은 술레 파고다에 대한 인식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인식론적 차이를 보이는데, 미얀마인들은 '공간적 접근성'과 '종교 문화적 공간성'의 이유로 술레 파고다보다는 쉐더공 파고다에 더 관심을 보인다.

두 번째로, 현대의 여러 문화적 변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을 그들의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오늘날 신성한 공간인 쉐더공 파고다 공간에는 세속적인 현대식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네온사인 장식, 세속적인 상인 공간이 일상적인 경관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쉐더공 공간의 이질적 변형에 대한 논의는 영국식민통치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영국식민통치 기간 쉐더공 파고다 공간의 보전 및 이질적 변형 이슈는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미얀마 '전통' 문화를 박물관화하려는 인식과 미얀마인들의 경쟁적인 '공덕 쌓기' 문화관행 실천을 이교도적인 (pagan) 낭비와 소비로 규정하고 기독교적 윤리의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문화 보전'이라는 명분을 통해서라도 미얀마인들의 정체성의 상징인 쉐더공 파고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상상의 전통적인' 물질적 공간으로 보전하려던 영국의 정치동학적 의도와도 연관이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 군부독재정권은 쉐더공 파고다를 도구주의적으로 상좌부불교적인 물질적 공간으로 보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오늘날 쉐더공 파고다 공간의 보전 및 변형 방식은 물질적 공간 구성방식보다는 정신적 공간 구성방식과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날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 공간을 '미얀마식' 정신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쉐더공 파고다는 대항해시대와 영국식민통치 기간 동안 서양여행자와 서양예술인들 등에 의해 미얀마의 대표적인 이국적 피사체로 떠오르면서 '심미적이고 이국적으로' 이미지화되었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오리엔탈리즘적' 이미지가 생산되고, 확산되

고, 표상되고, 재현되고, 소비되어 왔다. 독립 이후 군부독재정권 시기에는 군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쉐더공 파고다의 ‘미얀마적이고 상좌부불교적인’ 이미지를 이데올로기화하기도 했으며, 2011년 이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 홍보 수단으로 스펙터클한 쉐더공 파고다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쉐더공 파고다는 미얀마 근대역사 속에서 다양한 맥락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표상되고, 재현되어져 왔으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미얀마인들은 쉐더공 파고다를 상좌부불교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인식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통’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쉐더공 파고다와 같은 공간의 ‘전통’의 표상과 재현이 문화적 관념과 인식에 따라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미얀마인들의 실천과 인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물질적인 요소를 정신적인 요소로 포용하려는 미얀마 상좌부불교의 혼합주의적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얀마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혼합주의적 논리를 바탕으로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을 대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쉐더공 파고다의 공간은 종교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미얀마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기제로 재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유진. 2017. “쉐다곤 불탑의 의미와 양식.”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건축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성원. 2001. 『미얀마 왕조사』.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예겸. 2014. “인도네시아 발리 께작(Kecak)공연의 맥락화 (Contextualization).” 『아시아연구』 17(3): 163-196.
- 김용규. 2013.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서울: 소명출판.
- 김지혜. 2019. “미얀마 쉐더공 파고다의 표상과 재현: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 “미얀마 쉐더공 파고다의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재현 및 실천.” 『한국아시아학회』 23(3): 279-306.
- 박민수. 2015.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바바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39: 23-41.
- 사이드, 에드워드. 2007.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산업일보. 2016. “미얀마 연등행사 LED로 교체: 미얀마 소비자들에게 생활 소비재로 다가가.” <http://www.kidd.co.kr/news/188291> (검색일: 2018.09.15.)
- 아파두라이. 1996. 『고삐 풀린 현대성(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서울: 현실문화연구.
- 이중남. 2009. “버마 승가의 저항 역할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준영. 2003. “버마 정치에 있어서 종교와 상징: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동남아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2015.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 2004. “관광포스터의 메시지 구성요소가 관광지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16(2): 161-179.
- 조준호. 2017.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현황.” 『불교평론』 69호.
- 천득엽·염승훈. 2018. “미얀마 불탑의 기원과 형식 유래에 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7(2): 63-78.
- Bhabha, Homi. 200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역). 서울: 소명 출판.
- Abbott, Gerry. 1997. *Inroads into Burma: A Travellers' Anthology*.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De Lima, I. B.·V. T. King. 2017. *Tourism and Ethnodevelopment: Inclusion,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London: Routledge.
- Edwards, Penny. 2006. “Grounds for Protest: Placing Shwedagon Pagoda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y.” *Postcolonial Studies* 9(2): 197-211.
- Falconer, John, Elizabeth Moore, Daniel Kahrs, Alfred Birnbaum, Virginia Mckeen Di Crocco, and Joe Cummings. 2007. *Burmese Design and Architecture*. HK: Periplus Editions(HK) Ltd.
- Hay Mann Zaw. 2015. “Urbanism and Cultural Heritage: How to Maintain History and Forge into Modernity in a Fast Growing Yang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rma/Myanmar Studies*. Chiang Mai University, Thailand.
- Hitchcock, M.·V. T. King, M. Parnwell(ed.). 2010. *Heritage Tourism*

- in Southeast Asia*. Honolulu: Nias Press.
- Khin Maung Nyunt. 2000. *Sule Pagoda: the Heart of Yangon*. Yangon: Sule Pagoda Trustee.
- Krishna Murari. 1985. *Cultural Heritage of Burma*. New Delhi: Inter-India Publications.
- Ma Thanegi. 2007. *Shwedagon Mystique*. Yangon: Asia Publishing House.
- Michael Aung-Thwin and Maitrii Aung-Thwin. 2012. *A History of Myanmar Since Ancient Times*. London: Reaktion Books Ltd.
- Moore, Elizabeth H. 2012. *Unexpected Spaces at the Shwedag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 Moore, Elizabeth H and Navanath Osiri. 2014. "Urban Forms and Civic Space in Nineteenth- to Early Twentieth-Century Bangkok and Rangoon." *Journal of Urban History* 40(1): 158-177.
- Moore, Elizabeth and Hansjorg Mayer and U-Win Pe. 1999. *Shwedagon: Golden Pagoda of Myanmar*. London: Thames & Hudson.
- PEARN, B. R. 1939. *A History of RANGOON*. Yangon: American Baptist Mission Press.
- Schober, Juliane. 2011. *Modern Buddhist Conjunctures in Myanma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eekins, Donald M. 2013. "Sacred Site or Public Space? The Shwedagon Pagoda in Colonial Rangoon." J. Whalen-Bridge et al. (ed.). *Buddhism, Modernity, and the State in Asia*. 139-159.
- Smith, V. L. (ed.). 1989.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 Tourism*(Second Edi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tadtner, Donald M. 2011. *Sacred Sites of Burma*. Bangkok: River Books.
- Strong, John S. 2004. *Relics of the Buddha*.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T. Hesketh Biggs-F. S. S. 1895. *The ShweDagon Pagoda, Rangoon*. Rangoon: Hanthawaddy Press.
- U Tun Aung Chain and U Thein Hlaing. 1996. *Shwedagon*. Yangon: The Universities Press Yangon, Myanmar.
- Win Pe. 1972. *Shwedagon*. Yangon: Printing and Publishing Corporation.
- မောင်မောင်ကြီး [Maung Maung Gyi] · ထွန်းရီ [Htun Yee]. 2012. *ရှေးရှေးတုန်းကရွှေတိဂုံ* [Sheshedongar Shwedagon]. Yangon: Alinthit Sapye.
- မောင်ဆုရှင် [Maung Suu Shin]. 2011. *မြတ်ဘုရားရွှေတိဂုံ* [Myat-hpaya Shwedagon]. Yangon: Myanmar Heritage.
- မင်းယုဝေ [Myin yu we]. 2016. *ရွှေတိဂုံစေတီတော်* [Shwedagon Zedidaw]. Yangon.
- Sai Aung Win. 2010. *Festivals Galore: Bawgyo and Other Festivals*. Yangon: Bamokha Sadan Ahpwe(English-Myanmar).
- စိန်ဝင်းစိန် [Sein Win Sein]. 2016. *ရှေးရှေးတုန်းကမြို့ရန်ကုန်* [Sheshetongar Myo Yangon]. Yangon: UNITY.
- ဦးကျော်ကျော်ဝေ [U Kyaw Kyaw We]. 2017. *မြတ်ဘုရားရွှေတိဂုံ* [Myathpaya Shwedagon]. Yangon: Thakin aunghei.

(2020.10.15. 투고, 2020.10.29. 심사, 2020.11.14. 게재 확정)

<Abstract>

Image and Representation of Shwedagon Pagoda as a Place of ‘Tradition’ in Myanmar

Ji Hye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research aims to show how Shwedagon Pagoda, located in spatially open and culturally diverse Yangon, was culturally transformed via conflict and integration between Myanmar tradition and colonial/modern practices through historic and cultural situations, which is reflected within the area of Shwedagon Pagoda, and sheds light on the application of Pagoda by Burmese, in accordance with historic and cultural context. In doing so, it is revealed that Burmese accept Shwedagon Pagoda as their ‘tradition’ in spite of several acculturation, and Pagoda continues to function as a basis for confirming and continuing Myanmar identity. This ideology, in which Burmese seek to accommodate all the different components within the area of Shwedagon Pagoda, stems from syncretism of Myanmar Theravada Buddhism where materialistic components are embraced by spiritual component. This research explains that such ‘Myanmar Theravada Buddhist’ cognitions and practices present in Shwedagon Pagoda represent Myanmar culture.

This research focuses on Shwedagon Pagoda's ‘traditional’ image and representation, which highlights cultural idea and recognition of

Theravada Buddhist Shwedagon Pagoda by Burmese, correlated to Myanmar Theravada Buddhist syncretism, embracing materialistic component by spiritual component. Burmese, as they have done so through their long history, will continuously practice their 'syncretic' logic in Shwedagon Pagoda, and through their practice and representation Shwedagon Pagoda will be imaged as basis of Myanmar identity. This is how the people of Myanmar create their own culture.

Keyword: Myanmar, Shwedagon Pagoda, Theravāda Buddhism, Tradition, Modernity, Representation.

